

영암군, '가장 안전한 영암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농·축협·산림조합·영암경찰 등 총 13개 유관기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교통사고 예방 등 함께 노력

영암군은 지난 10월29일 영암군청에서 영암군, 농·축협, 산림조합, 영암경찰서 등 총 13개 유관기관과 함께 '가장 안전한 영암 만들기'를 위한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조우종 영암경찰서장, 오정현 농협영암군지부장을 비롯한 이부봉 영암군산림조합장, 이맹중 영암축산협동조합

장, 음연 농협조합장이 참석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영암군에서는 올해 교통사고 신규 설치 1개소, 교통사고예방기 교체 2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용 성안내시스템,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5개소, 교통관제용 CCTV 설치 14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신규 설치 4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개소,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26개소 등 추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내 교통사고 유지보수 관련 정비를 영암경찰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10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망사고는 10건에서 8건으로 20%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 축협 및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의 시인성을 향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없는 가장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언택트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 실시

비대면 기관 간 영상회의·상황판단회의·장비점검 실시



영광군은 방사선 누출사고 등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2020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10월29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다수인 집합 훈련을 지양하고, 방사선 비상상황을 가상하여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 간 비상상황 전파 및 조치 현황을 점검

하였다. 또한 영광군의 실무부서 간의 조치사항을 훈련하고 각종 방사선 계측 장비와 구조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영광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자력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실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원전으로 인한 상시 방사선 위험에도 단단하게 대비하겠다."고 안전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광 한빛원전은 3·4호기에서 각각 다수의 공극(구멍)이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5호기가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자동정지되는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시금치 일관기계화 연사회' 개최

파종에서 수확까지 노동력은 낮추고 소득은 높이고

신안군은 지난 10월27일 도초면에서 농업인,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금치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연사회를 개최하였다. 신안시금치는 관내에서는 매년 매출액 200억원에 달하는 효자 품목임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맛 좋은 식재료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산과파종, 복토작업, 배수로 정비, 육용 수확방식 등의 노동집약적인 관행재배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관기계화를 적극 도입하여 파

종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시금치 적용 농기계 연사회를 통해 생력기계화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각 농기계의 보완점을 협의하였다. 특히 시금치 기계파종은 종자량을 절약할 수 있고 육용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계수확은 인력수확에 비해 96%의 노동력과 86%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동취재본부

'fall in 목포' 공연여행

6일 오후 5시 하당 평화광장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6일 오후 5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fall in 목포' 공연 여행은 fall의 의미인 가을, 빠지다 라는 단어를 살려 가을에 빠지다, 목포에 빠지다 라는 컨셉을 담았다. 시가 이번 공연여행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선물하며 지역경제에 생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공연관광협회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사)한국공연관광협회는 현재 '힘내라 대한민국 공연여행'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항주, 상하이 등에서 k-년버벌 페스티벌 공연,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고, 문체부 후원을 받아 국내순회 특별공연을 하고 있는 고품격 공연단체다. 이 단체가 이번에 목포에서 펼칠 무대는 뮤지컬 2편(오! 당신이 잠든사이, 아리 아리리), 비언어로 진행되는 년버벌 4편(세프, 페인터즈, 점프, 하이라이프) 등 총 6개 공연이다. 그리고 목포시립합창단원들이 관객들과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를 마무리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든 여정에 처해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지치고 힘든 생활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효자 노릇'



무안군은 지역상품권인 무안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0월 중순 기준 470억 원을 돌파했다고 10월26일 밝혔다. 2019년 7월 첫 발행된 무안사랑상품권은 올해 61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추석을 앞둔 지난 9월에는 한달

동안 128억 원이 판매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0% 특별 할인 판매 실시로 일반 판매분 증가와 더불어 각종 정책수당 상품권 지급 등으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된 상품권의 회수율은 85%로, 이에 따른 사용처는 소매점(마트, 전통시장 등) 73%, 음식점 13%, 보건업 4%, 기타 업종 10%이다. 올해 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경찰, '언택트-비접촉' 교통치안활동 호응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기여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10월 29일, 함평축산협동조합과 협업하여 대형 야광반사지 1천매를 제작·배부 활동에 들어갔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주·야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이 잦고 특히, 추수 막바지에 이른 현시점에서 야간에 시인성 부족으로 사고 발생시 치사율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고조되어 언택트 교통치안활동으로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야광반사지 및 어르신 전동차 야광X반도 부착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고위도 야광반사지는 농촌지역 도로상에 가로등 설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차량불빛 등 반사로 야간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이 높아 야간 농기계 등 운행시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종열 서장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예방 대책 수립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